



## 2-2 One Page Proposal [2조]

### 1. 프로젝트 제목

#### 입법예고 요약 알림 자동화 시스템

- 국회와 정부 입법예고를 빠르게, 쉽게, 시민에게 전달하다

---

### 2. 프로젝트 내용

이 프로젝트는 국회 및 정부에서 공개하는 입법예고 공고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이를 시민이 이해하기 쉬운 카드뉴스 형태로 요약하여 전달하는 구독형 서비스이다. 사용자는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를 선택해 구독을 시작할 수 있으며, 해당 주제의 입법예고가 발생하면 요약된 콘텐츠와 함께 의견 제출 경로까지 함께 안내받는다. 전달 방식은 이메일과 인스타그램 카드뉴스 형태를 동시에 활용하며, 콘텐츠 제작과 발송은 자동화된다.

---

### 3. 프로젝트 제안 동기

대다수 시민은 우리 일상에 영향을 주는 정책이나 법률이 언제, 어떻게 바뀌는지 알기 어렵다. 특히 법률이 국회에 제출되기 전에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낼 수 있는 유일한 시기가 존재하지만, 많은 시민이 이 사실조차 모른다. 발의된 이후에 반대해도 늦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전에 정보를 빠르게 접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이 프로젝트는 '발의 전에 대응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시도다.

---

### 4. 프로젝트의 차별성과 가치

기존의 입법 정보 서비스는 전문적인 용어나 텍스트 위주의 안내가 많아 일반 시민이 접근하기 어렵다. 이 프로젝트는 정보 전달 방식 자체를 전환한다. 법률전문이 아닌 카드뉴스 중심의 콘텐츠를 통해 시각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의견 제출 경로를 직관적으로 안내함으로써 입법 참여의 진입장벽을 낮춘다. 또한 기존 서비스가 '검색 중심'이었다면, 본 프로젝트는 '알림 기반' 구독 서비스라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법률 제정 이전 단계에서의 실질적인 시민 참여를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

### 5. 필요한 데이터 확보 방법

입법예고 공고 데이터는 정부의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http://opinion.lawmaking.go.kr))와 국회의 입법예고 플랫폼([pal.assembly.go.kr](http://pal.assembly.go.kr))에서 셀레늄 기반의 크롤링 방식으로 수집한다. 두 사이트 모두 공공 웹이므로 접근이 가능하며, 각 예고안에서 제목, 제안이유, 주요내용, 예고기간, 상세 링크 및 의견 제출 경로를 추출하여 콘텐츠 제작에 활용한다. 수집된 데이터는 매일 자동 실행되는 스케줄러와 함께 DB에 저장된다.

---

### 6. 분석 내용 및 적용 기술

입법예고 공고를 수집한 뒤, 핵심 내용을 요약하고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바꾸는 데 GPT를 활용한다. 이 요약 과정은 LangGraph 기반의 Agent를 통해 자동화되며, 예상되는 사회적 영향과 향후 변화도 LLM을 통해 생성한다(프롬프트를 통한 조정). 카드뉴스는 템플릿 기반으로 제작되며, Make(n8n) 워크플로우로 Figma 또는 Canva API를 이용해 자동 생성한다. 콘텐츠는 Make(n8n) 워크플로우를 활용해 이메일과 인스타그램으로 자동 발행되며, 사용자 구독 설정은 FastAPI와 MongoDB 기반의 간단한 백엔드로 관리한다. 요약 대상 법안의 주제 분류는 GPT와 키워드 기반 분류 규칙을 병행하여 자동 처리한다.

---

## 7. 프로세스 및 일정

- 7월 4일~7일
  - 정부 및 국회 입법예고 공고 크롤러 완성 및 테스트
- 7월 7일~9일
  - 카드뉴스 템플릿 설계
  - 요약 시스템을 LLM과 연동하여 자동화 파이프라인 구축
- 7월 9일~11일
  - 자동 콘텐츠 전송 워크플로우를 Make(n8n)으로 연결
  - 이메일 및 인스타그램 API를 통한 전송 시뮬레이션 수행
- 7월 11일~12일
  - 전체 시스템 통합
  - 데모 시나리오 기준 최종 리허설 진행
- 7월 13일
  - 발표용 PPT 및 시연 자료 제작
- 7월 14일
  - 최종 발표 진행

---

## 8. 예상되는 최종 목표 및 결과물

입법예고가 새로 올라오면 이를 수집해 요약하고, 카드뉴스 형태로 가공한 뒤 구독자에게 메일과 인스타그램으로 발행하는 일련의 과정이 자동으로 실행된다. 결과물에는 다양한 주제의 입법예고안을 시각화한 카드뉴스 샘플이 포함되어, 최소 3~5건 이상의 데모 콘텐츠를 제시할 계획이다. 사용자 맞춤 구독 설정 기능도 포함되어, 관심 주제 기반으로 콘텐츠를 분류·전달하는 기능을 구현한다. 마지막으로, 전체 과정과 핵심 기술 적용 방식을 설명하는 발표 자료와 시연 영상도 함께 준비할 예정이다.